

설날 가정 기도회

설날 가정 기도회를 통해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50 장 다 같이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 땅들아 바다야 많은섬 돌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 도 말 은 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우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모여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다. 사랑하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과 형제, 일가친척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 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손으로 수고한대로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잠언 16장 9절(구약 p.928) 말 은 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 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말 은 이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과 정을 나누는 설 명절입니다. 지난 한 해를 신실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2년 새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돈과 물질을 의지합니다. 또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문제, 진로문제, 결혼문제, 사업문제, 건강문제,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애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지혜와 힘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이며, 상한 갈대를 의지하고 걸어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복된 인생의 모습을 말씀해줍니다. 세상과 같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의 키를 우리가 잡고 나갈 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

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선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탁월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
버지라 부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선히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
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
님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 송 570 장 다 같 이

1. 주는 나를 기르 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인도 하여 주신다
2. 예쁜 새들 노래 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 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기도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
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2년

설날 가정 기도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이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28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 | 항 | 대 | 흥 | 교 | 회